

2020년 6월 3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호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강세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승세 확대는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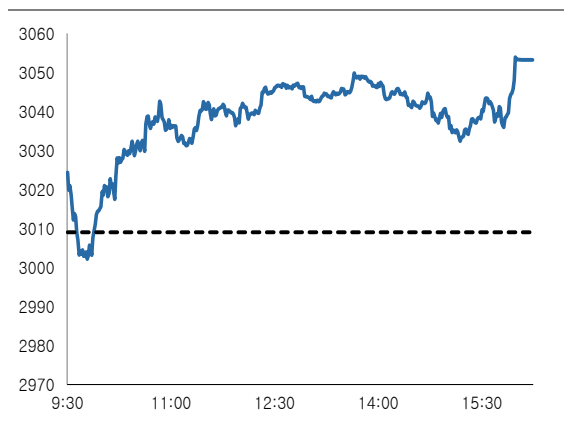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항공, 여행, 산업재 강세

미 증시는 코로나 재 확산 우려로 장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보잉을 비롯한 항공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확대. 특히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사망자수가 전일 대비 감소하자 경기 민감주 위주로 상승을 주도. 여기에 경제지표도 우호적인 영향. 다만, 고용불안을 비롯해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오후 들어 상승세는 제한(다우 +2.32%, 나스닥 +1.20%, S&P500 +1.47%, 러셀 2000 +3.08%)

일요일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6,544 명을 기록해 최근 4 만건 이상을 기록하던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발표. 특히 사망자 수가 288 명에 그쳐 급증하던 코로나 불안 심리가 완화. 물론 기록적인 수치가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으나 수치가 감소했고, 보잉(+14.40%)이 737 맥스에 대한 생산을 재개했다는 점, 항공 여행 관련 예약이 취소율을 앞질렀다는 보도가 나오며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등 안정을 보임. 여기에 지난 금요일 급락했던 페이스북(+2.11%)과 알파벳(+2.54%) 등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고, 5 월 잠정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44.3%나 급증하는 등 경제지표 개선도 우호적. 시장 참여자들은 대체로 상승 요인에 민감한 반응

그렇지만 여전히 경기 불안 요인들이 영향을 주며 상승세를 제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고용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라고 주장해 하반기 경기 부담을 높임. 특히 미 노동부가 5 월 인구대 고용률은 이를 추적해 왔던 1948 년 이후 가장 낮은 52.8%를 기록했고 이는 미국인 중 47.2%가 실업자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발표해 고용 불안 우려를 높임. 한편, 목요일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데 실업률이 13.3%에서 12.4%로 개선 될 것으로 전망. 그렇지만 이는 구직포기자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최근 신규 실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 등을 감안 노동시장 개선 둔화 가능성이 제기. 결국 미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나 상승세를 지속하기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그 폭을 크게 확산되지 못하며 마감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093.48	-1.93	항공항생	24,301.28	-1.01
KOSDAQ	734.69	-2.12	영국	6,225.77	+1.08
DOW	25,595.80	+2.32	독일	12,232.12	+1.18
NASDAQ	9,874.15	+1.20	프랑스	4,945.46	+0.73
S&P 500	3,053.24	+1.47	스페인	7,278.10	+1.39
상하이종합	2,961.52	-0.61	그리스	635.86	-0.95
일본	21,995.04	-2.30	이탈리아	19,447.02	+1.6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5% 급등

보잉(+14.40%)은 737맥스 생산 재개 등에 힘입어 급등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9.64%)은 골드만 삭스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델타항공(+6.32%), 아메리칸 에어라인(+7.59%) 등 여타 항공주는 예약이 취소율을 상회하자 강세를 보였다. 여기에 경제 재개가 지연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하자 부킹닷컴(+3.30%), 익스피디아(+6.65%) 등 여행주와 카니발(+6.34%), 로얄 크루즈(+8.38%) 등 크루즈 업종, 윈 리조트(+7.49%), 매리어트(+6.99%) 등 카지노, 호텔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한편, 광고수익 감소에 기반 실적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페이스북(+2.11%), 트위터(+1.51%)는 물론 알파벳(+2.54%)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 애플(+2.30%)은 차기 아이폰에는 콘서트 등이 미 포함돼 가격인하 가능성이 부각되자 강세를 보였다. 반면, 비온드 미트(-7.15%)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및 맥도날드가 적극적인 비온드 미트 상품을 이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급락했다. 아마존(-0.46%)은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마이크론(+1.35%)은 시간 외 양호한 실적 발표 후 5%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09%	대형 가치주 ETF(IVE)	+1.66%
에너지섹터 ETF(OIH)	+1.83%	중형 가치주 ETF(IWS)	+2.16%
소매업체 ETF(XRT)	+3.56%	소형 가치주 ETF(IWN)	+4.30%
금융섹터 ETF(XLF)	+1.11%	대형 성장주 ETF(VUG)	+1.32%
기술섹터 ETF(XLK)	+1.09%	중형 성장주 ETF(IWP)	+0.5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0%	소형 성장주 ETF(IWO)	+2.27%
인터넷업체 ETF(FDN)	-0.13%	배당주 ETF(DVY)	+2.39%
리츠업체 ETF(XLRE)	+1.72%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6%
주택건설업체 ETF(XHB)	+3.4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2%
바이오섹터 ETF(IBB)	-0.36%	미국 국채 ETF(IEF)	+0.10%
헬스케어 ETF(XLV)	+0.90%	하이일드 ETF(JNK)	-0.82%
곡물 ETF(DBA)	+1.44%	물가연동채 ETF(TIP)	+0.11%
반도체 ETF(SMH)	+1.02%	Long/short ETF(BTAL)	-2.4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1.26	+1.43%	-5.70%	-5.14%
소재	349.84	+1.91%	-0.99%	-0.13%
산업재	577.25	+3.19%	-1.15%	+1.05%
경기소비재	1,033.56	+1.33%	-1.69%	+2.19%
필수소비재	596.52	+1.85%	-1.30%	-2.14%
헬스케어	1,147.04	+0.85%	-1.60%	-3.29%
금융	379.56	+0.99%	-3.86%	-3.18%
IT	1,805.46	+1.11%	-1.25%	+5.04%
커뮤니케이션	177.53	+2.05%	-3.78%	-2.64%
유틸리티	285.79	+1.86%	-2.39%	-6.38%
부동산	213.00	+1.69%	-2.10%	-2.6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지표 및 마이크론 영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3%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45%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0.1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일부 호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강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 경제지표 호전과 일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개별 기업들의 강세로 상승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수요 증가 기대 등으로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오후 들어 고용 불안 등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그 폭이 제한되었다. 이는 한국 증시가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출발이 예상되나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 그 폭을 확대하지 못함을 예상케 한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와 미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의 영향이다. 특히 중국의 6월 제조업 PMI는 전월(50.6) 보다 소폭 둔화된 50.4, 서비스업 PMI는 전월(53.6) 보다 소폭 개선된 53.7로 전망되고 있는 데 이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안심리가 이어진 가운데 발표되는 수치라는 점, 이를 통해 투자심리 개선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마이크론이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후 시간 외로 5%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주택 지표 개선

5월 미국 잠정 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44.3% 급증해 예상(mom +11.3%)을 상회 했다. 이러한 주택 계약 체결 급증은 소비 회복 등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6월 달라스 연은 지수는 전월(-49.2)나 예상(-26.0)을 상회한 -6.1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가 전월(-30.6) 보다 크게 개선된 2.9로 반등했으며, 설비 가동률 또한 전월(-26.0) 보다 크게 개선된 7.6으로 발표되는 등 대부분이 개선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수요 증가 및 공급감소 기대 속 3%대 급등

국제유가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유럽의 경기 부양 정책,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중국의 산업이익 개선(yoy +6.00%) 등으로 수요 증가 기대가 확산되며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OPEC의 6월 산유량이 5월 수준 대비 1,250만 배럴 감소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산유량 감소 기대가 높아진 점도 급등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기대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엔화는 중국과 미국 지표 호전을 기반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비롯한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폭 하락했다. 특히 최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던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주정부는 물론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뉴욕 주정부 또한 일부 소매 유통업체들에 대한 정상화를 늦출 수 있다는 발표도 부담을 줬다. 한편,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고용불안을 언급해 금리 하락을 부추겼다.

금은 달러 수요 속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소폭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제지표 호전을 기반으로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9.70	+3.14	-2.53	Dollar Index	97.483	+0.05	+0.46
브렌트유	41.71	+1.68	-3.18	EUR/USD	1.124	+0.19	-0.19
금	1,781.20	+0.05	+0.84	USD/JPY	107.57	+0.33	+0.62
은	18.064	-0.57	-0.06	GBP/USD	1.2294	-0.34	-1.40
알루미늄	1,609.00	+0.47	+0.37	USD/CHF	0.9513	+0.38	+0.38
전기동	5,961.50	+0.08	+1.38	AUD/USD	0.6867	+0.03	-0.59
아연	2,061.50	+1.13	-1.25	USD/CAD	1.3668	-0.15	+1.08
옥수수	328.75	+2.98	-1.28	USD/BRL	5.4011	-1.52	+2.74
밀	486.50	+2.26	-0.61	USD/CNH	7.0778	-0.11	+0.28
대두	861.50	+0.03	-2.02	USD/KRW	1198.60	-0.17	-1.41
커피	100.10	+3.57	+2.14	USD/KRW NDF1M	1200.19	-0.32	-0.7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30	-1.14	-7.86	스페인	0.466	+1.20	+0.80
한국	1.357	+3.20	-3.30	포르투갈	0.469	+1.50	-1.50
일본	0.018	+0.60	+0.60	그리스	1.251	-1.30	-2.10
독일	-0.470	+1.20	-3.10	이탈리아	1.295	+0.60	+0.90